



무인/ 자동화
경험하셨나요?

“
무인/ 자동화 매장
여러분은
경험하셨나요?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무인 셀프 시스템
롯데리아(460개 매장 설치), 맥도날드(올해 250여
개 설치 예정), 버거킹(268곳 중 47여 곳 설치),
한솔, 베스킨 라빈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무인 자동화 매장





‘자판기’의 왕이었던 커피자판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고

‘무인화’의 흐름에 따라 꽃, 화장품,
샐러드 등 ‘이색 자판기 시대’가
도래했다.



꽃 자판기는 ‘차세대 왕’ 1순위이다.
보통 꽃가게에 들러 구입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자판기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날로 증가하는 요식업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
 올라가기에만 바쁜 건물 임대료, 식재료, 임금비용 종업원 3명을 쓰는 소점포가
 500만원짜리 **키오스크 1대**를 도입하면 연간 인건비 (최저임금 기준 인당
 1888만원)가 1/10 수준으로 줄어든다.
 3명의 종업원 대신 키오스크 1대가 **연간 51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줄이는 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셀프 시스템 도입 후
 연간 2.5명 이상 인건비가 절약된 것!**

“

24시간 **무인편의점**인 빙고박스가 1억 위안이 넘는 투자를 받으면서 무인판매시장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내에 **무인판매시장**이 업계의 새로운 발전기회로 부상하면서 온·오프라인 거대업체의 무인판매시장 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기업	무인편의점	오픈시기	매장면적	구매과정	제품인식과정	구매만족도
인터넷 대기업	아마존 Amazon Go	2016.12.	167㎡	QR코드 스캔 후 진입 → 제품 선택 → 자동지불	인공지능	★★★★
	알리바바 타오카페 (阿里淘咖啡)	2017.7.	200㎡	QR코드 스캔 후 진입 → 제품 선택 → 자동지불	인공지능 (혹은 RFID포함)	★★★★
	TakeGo	2017.6.	제한없음	QR코드 스캔 후 진입 → 제품 선택 → 자동지불	인공지능	★★★★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무인 셀프 주문시스템으로
 더이상 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고
 주문 받던 인력이 다른 곳에 투입되어
 메뉴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에 의해
 매장 회전율이 증가되니 운영 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등공신 시스템을 얻는 것!

간혹 커뮤니케이션을 부담스러워 하던
 고객들은 메뉴 결정하느라 앞에 있는
 카운터 직원 눈치, 뒷사람 눈치를 보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인 주문시스템의
 장점입니다.

“
 주문/ 결제가 이뤄지는
 셀프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10배 가량 높아진 문의
 “



“

무인판매는 소비자, 기술, 시장수요 등
방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무인판매 쇼핑 의식과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위험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상황이다.

무인판매 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제품
손실률, 설비 소모율 및 매장 진열대
위생 등도 함께 향상되어야 한다.

“



“

무인판매기 수량과 이용자 규모는 증가할 전망

무인판매는 미래의 쇼핑모델로서 취급제품이 전
제품으로 확대될 것임.

최근 무인판매시장은 관련 신규 업체들이 새롭게
개설되고 있는 초기단계로 이용자 규모는 낮은 편임.

“

2017년 무인판매점 이용자 규모는 600만 명으로 향후 5년간 대폭
증가해 2022년 이용자 규모가 2억45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공지능 식별기능 등 발전에 따라 무인판매는 차세대 거대 판로가 될
것임.